

전주가맥축제 성공 개최 '한마음'

축제추진위, 참여업체 간담회 열어... 합리적 가격·위생·안전관리 강화 다짐

전주의 대표 여름축제인 '2026 전주가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추진위원회와 참여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실천을 다짐했다.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참여업체 대표와 추진위원, 축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가맥축제 참여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운영 일정, 메뉴 구성과 판매가격,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친환경 용기 사용과 폐기물 처리, 화재·가스·전기 안전수칙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추진위원회와 참여업체들은 바

가지요금을 근절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메뉴별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가격과 원산지 등을 투명하게 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식재료 보관과 조리공간 위생관리, 안전수칙 준수 등 책임 있는 축제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충용 전주가맥축제 총감독은 "가맥업소는 전주가맥축제의 맛과 정체성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합리적인 가격과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주년을 맞는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인의 독특한 생활문화인 '가맥주'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하이트진로, 지역 가맥업소들이 함께 만들어 온 전주의 대표 여름축제다.

'2026 전주가맥축제'는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전북대학교 복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며, 전주를 대표하는 가맥 안주와 당일 생산한 신선한 맥주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형 헴프산업 육성 본격화

바이오진흥원, 식약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 취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를 취득하면서 전북형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바이오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전북형 헴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헴프는 다양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관리돼 제품화 연구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허가 취득으로 바이오진흥원은 합법적인 연구관리 체계 안에서 헴프 자원 확보와 재배기술 개발, 소재화, 성분 분석 등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을 활용해 전북 지역에 적합한 신규 품종 확보와 기능성 검증을 추진하며, 전북대학교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는 지난 6월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수확한 원료를 확보해 성분 분석과 활용 가능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3일 참여기관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연구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으며,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연계 전략과 신규 자원 확보, 재배·분석·소재화 연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기술개발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약 4,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가 식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지역 바이오기업과 연계해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상근 기자

기후·환경 변화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확산' 맞손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임실농협,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와 임실농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확산에 힘을 모은다.

는 상황에서 전력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사용 전력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 사용 안내'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 예방과 전력설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취약 전기설비에 대한 지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재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는 지난 10일 임실농협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과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와 임실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영

농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산학연 협력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고도화 지원에 본격 나선다.

기술강화형 15개사 등 모두 25개사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성과 사업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 협동프로그램' 기술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평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2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설계형은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기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Co-design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술자문을 비롯해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연구개발(R&D) 기획과 전략 수립 등 기업 맞춤형 기술고도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부의 '테크노파크 생산성비 고도화 지원사업(2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학교가 보유한 연구 장비와 기술 역량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고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특수목적 모빌리티와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사업화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기업들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대학교가 보유한 3D프린터와 X선 3D스캐너, 전자현미경 등 첨단 연구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제품 개발과 성능 개선, 기술 검증 등 기술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공동설계형 10개사와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6곳 선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026년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6곳을 선정하고 총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에 나선다. 특히 이번 선정위원회는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려 지역과의 연계 의미도 더했다.

올해는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핵심인력 겸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선정된 운용사들은 각각 벤처펀드를 조성해 4년간 투자하고, 펀드 만기는 8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각 펀드에 총 4,000억 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 발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에는 습기와 물기로 인해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되면서 누전과 감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사가 제시한 전기안전 5계명은 △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침수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 △ 맨홀과 가로등, 신호등, 전봇대 등 전기시설물 주변 접근 자제 △ 랜턴과 휴대용 배터리 등 비상용품 사전 준비 △ 감전사고 발생 시 전원을 먼저 차단한 뒤 119에 신고하고 절연체를 이용해 구조하는 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이상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를 통해 전기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